

# 1926년부터 1927년까지 신의주 ‘압강인쇄소’ 근무



1936년 8월 9일 백림의 하늘 아래서 세계의 건각들을 물리치고 제일 높은 시상대 위에 올라섰던 손기정용의 표정은 그리 밝지 못했다.

한 독일인은 가장 위대한 사나이들을 위해 마련된 시상대 맨 위에 올라선 손기정용과 남승룡용의 사진을 보고 다음과 같은 표현을 했었다.

“헌데 시상대에 올라간 이 두 일본인 승리자들의 표정. 이것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슬픈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불가사의한 사진. 무엇이 이 두 승리자들을 이런 슬픈 모습으로 시상대에 서게 했는가.”

손기정용 자신도 그날의 승리를 ‘감격이 아닌 조국을 잃은 자의 비애’라고 자신의 자서전 ‘나의 조국 나의 마라톤’에서 표현한 적이 있다.

‘비극의 시대였다. 희망도 꿈도 없는 길고 긴 암흑의 터널이었다. 절망만이 가득하던 그 시대에 내가 택한 것이 마라톤이었다. 희망을 향한 탈출구라도 좋았고 끝내는 파멸로 향한 길이라도 좋았다. 한 시라도 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다. 나는 마치 공기를 숨쉬듯 눈 덮인 언덕, 얼어붙은 자갈길을 뛰고 달렸다.’

‘마침내 올라선 마라톤 세계 정상에서

맛본 것은 끝없는 좌절감뿐이었다. 마라톤의 우승은 나의 슬픔, 우리 민족의 슬픔을 뼈저리도록 되새겨 주었을 뿐이었다. 나라가 없는 놈에게는 우승의 영광도 가당치 않은 허사일 뿐이었다.’

## 기술도 배우고 돈도 벌려고 인쇄소 입사

일제하 희망을 잃고 살아가던 조선의 민중들에게 ‘위대한 민족의 혼’을 일깨워 준 고(故) 손기정용이 일본 유학자인 1926년부터 1927년 신의주의 ‘압강(鴨江)인쇄소’에서 1년여 간 근무했었다.

일제하 일부를 제외하고 일본의 앞잡이가 아닌 대부분의 조선 민중이 그랬던 것처럼 손기정용의 집안 역시 꽤나 어려웠던 모양이다.

10살에 들어간 약죽보통학교 5학년때 신의주에 들이닥친 해일의 여파로 집안이 어려워지자 손기정용은 월사금을 벌기 위해 학교를 중단하고 장삿길에 나서서 다음 학기 월사금을 내곤 했던 것이다.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신의주에서 달리기로 유명해지자 상급학교인 신의주 상업학교로부터 일종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된다.

손기정용은 압강인쇄소 생활에 대해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하루종일 덜커덕거리는 인쇄기 소리에 귀가 따가왔다. 원고를 날라 주고 활자를 뽑아다 주고 정신 없이 바빴다.

“야 거기 문자 4호 하나 가져 와”

“예 민자요”

시끄러운 인쇄기 소리에 희미하게 들리는 어른들의 주문에 제법 눈치껏 활자를 뽑아서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바쁜데 엉뚱한 걸 가져 왔다고 뺨 얻어맞기가 일쑤였다.

하지만 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아 진학을 포기한 손기정용이 선택한 길은 '기술을 배우자'는 것이었다.

막상 기술을 배우려고 해도 온통 군수 산업만 발달한 일제치하인지라 제대로 된 기술을 배우기란 쉽지 않았던 터에 손기정용이 취직한 곳은 '압강인쇄소'라는 인쇄업체였다.

일제시대에 인쇄란 것은 그야말로 선각자들이 선택하는 업종으로 지금으로 치자면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로 여겨졌다. 당시에 인쇄업체를 운영하던 이들의 일면을 보면 '시일야방성대곡'의 장지연,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최남선, 같은 민족대표 33인이었던 이종일, 손병희 등 선각자들이었다.

이들 인쇄업체들은 단순한 영리 추구 목적이 아닌 신문화 보급과 민족의식 배양이라는 사명감에서 출발했다.

압강인쇄소는 신의주지역 장대높이뛰기 선수였던 일본인이 운영하던 인쇄업체로 같이 운동을 했던 손기정용의 소식을 듣고 흔쾌히 입사를 허락했다.

손기정용은 압강인쇄소 생활에 대해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하루종일 덜커덕거리는 인쇄기 소리에 귀가 따가왔다. 원고를 날라 주고 활자를 뽑아다 주고 정신 없이 바빴다.’

“야 거기 문(文)자 4호 하나 가져 와”

“예 민(閔)자요”

시끄러운 인쇄기 소리에 희미하게 들리는 어른들의 주문에 제법 눈치껏 활자를 뽑아서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바쁜데 엉뚱한 걸 가져 왔다고 뺨 얻어맞기가 일

쑤였다.’

어려운 생활 와중에도 인쇄사 일은 선생에게 제법 큰 별이가 됐던 모양이다.

선생이 받던 월급이 6전이었는데 당시 쌀 한 가마 값이 3전이었고, 손기정용이 신의주 대표로 대회에 나가 우승을 해서 받은 상품이 쌀 한 가마였다고 한다.

올림픽 우승 시상대에서 기뻐하지 않고 조국을 잃은 슬픔에 꽃으로 일장기를 가리고 고개를 숙인 선생의 민족의식도 어찌면 인쇄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생겼는지도 모를 일이다.

당시 인쇄업 종사자들도 경영자들 못지 않게 민족의식이 강한 이들이어서, 1925년 일본에 대항하기 위한 '조선인쇄직공청년동맹' 결성이 시도되기도 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부산지역 인쇄직공들이 일본인 인쇄회사를 상대로 노동쟁의를 일으켰으며, 이듬해인 1926년에는 함북 나남 지역 인쇄직공들이 역시 지역 일본 인쇄업체 경영자들을 상대로 쟁의를 일으킨 바 있으며, 이후 서울을 비롯해 인천, 평양, 부산 전국 주요 도시의 인쇄 직공들이 일본인 경영주들을 상대로 노동쟁의를 일으켰다.

이렇듯 인쇄업 종사자들은 단순한 임금미 아닌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노동쟁의를 일으킬 정도로 민족의식이 강한 이들이었다. 어찌면 훌륭한 인쇄인으로 성장했을지도 모를 선생과 인쇄와의 인연은 1927년 손기정용의 보통학교시절 담임이었던 이일성씨의 권유로 일본 유학을 떠나면서 끝나게 된다.

(이용우기자)



◇손기정용 주요 연보

- 1912년 5월 29일 평북 신의주 출생
- 1926년 압강인쇄소 입사
- 1927년 일본 유학길 올라
- 1936년 제11회 베를린올림픽대회 마라톤 우승
- 1937년 양정고등학교 졸업
- 1940년 일본 메이지대학 졸업
- 1947년 보스턴마라톤대회 한국팀 감독
- 1948년 대한체육회 부회장 취임
- 1957년 대한민국의체육상
- 1963년 대한육상경기연맹 회장 취임
- 1965년 대한육상경기연맹 고문
- 1966년 대한올림픽위원회 상임위원
- 1968년 국제육상경기연맹 공로상
- 1970년 국민훈장 모란장
- 1981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
- 2002년 타계